



광남일보



“일제, 조선인 공출 의무화...전쟁 물자 확보”
심정섭 명예관장, 면화·가마니 공출명령서 공개

5

전남신보, 금융·비금융 아우르는 플랫폼 도약
창립 24주년 기념식...반부패·청렴 실천 결의도

6

잘나가는 ‘화순팍’, 매출 32억 돌파
상품 다변화·마케팅 강화 주효

8

정남진 장흥 물축제, ‘피날레’도 시원하게 쓴다
8월 3일 폐막...김성 군수 “행복한 추억 만들길”

9

조간 제7896호 대표전화 062-370-7000 광고문의 062-370-7070

GwangNam.co.kr

2025년 8월 1일 금요일 (음력6월8일)

쌀·소고기 지키고 자동차도 ‘선방’...충격 최소화

한미 관세협상 타결

한국과 미국이 31일 관세협상을 타결했다. 우리 정부는 대규모 대미투자를 조건으로 상호 관세율을 25%에서 15%로 조정하는 데 합의했고, 쌀·소고기 등 민감 품목은 추가 개방 없이 방어했다. 자동차는 정부의 목표치였던 12.5%를 넘긴 15%에서 최종 조율됐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각각 SNS에 한미 관세협상 타결 소식을 알렸고, 이후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긴급 브리핑을 열어 세부적인 합의 내용을 소개했다. ▶관련기사 3면

김 실장은 “미국이 한국에 8월 1일부터 부과하기로 예고한 상호관세 25%는 15%로 낮아진다”며 “또한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관세도 15%로 낮췄다”고 말했다. 또 “추후 부가가 예고된 반도체, 의약품 관세도 다른 나라에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게 될 예정”이라며 “최혜국 대우를 받는 것으로 적시를 해 뒀다”고 밝혔다.

이 같은 합의의 결과로 조성될 3500억 달러 규모 펀드와 관련해서는 “한미 조선 협력 펀드 1500억달러는 선박 건조, MRO(유지·보수·정비), 조선 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선 분야 외에도 반도체, 원전, 이차전지, 바이오 등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에 대한 대미 투자 펀드도 2000억달러 조성될 예정”이라며 “해당 분야에도 우리 기업이 전략적 파트너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이 타결된 31일 광주 기아차 광주공장 생산라인에서 직원들이 부품을 조립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

상호관세 25%→15%...車, 12.5% 확보 못해
조선·반도체·이차전지 등 3500억 달러 투자
2주안에 정상회담...외교라인서 곧 일정 협의

너로서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2000억달러 펀드의 구체적 형태에 대해서도 “대출과 보증에 들어가는 돈이 가장 많을 것으로 보이고, 직접투자의 비중은 매우 낮을 것”이라며 “2000억달러라는 규모 역시 ‘한도’ 개념으로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김 실장은 앞서 미국과 합의를 타결한 일

본을 사례로 들며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2024년 기준 한국이 대미 무역에서 660억 달러 흑자, 일본은 685억달러 흑자를 기록한 상황에서 한국은 일본(5500억달러)보다 작은 규모인 3500억달러 투자펀드를 조성하기로 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더욱이 우리 기업이 주도하는 조선업 펀드 1500억달러를 제외하면, 우리의 투자펀드 규모는 일본의 36%에 불과하

다”며 “우리 나름대로 일본의 협상을 정밀하게 분석했으며 우리의 협상에 안전장치를 훨씬 더 많이 포함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자동차 관세의 경우 “한국은 마지막까지 12.5%가 맞다고 주장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 15%’라고 주장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김 실장은 일본이 기존 2.5% 관세에서 12.5%p 올린 15%로 합의한 점을 고려하면, 기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0% 관세를 적용받던 한국은 12.5%로 결정되는 것이 합리적이었다면서 “FTA 체제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에서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2면에 계속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이재명 대통령, 한미 관세협상 공개 메시지

“노심초사...국력 키워야겠다 생각”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한미 관세협상 과정에서 공개적인 메시지를 자제한 것과 관련해서 “(제가) 말을 하면 악영향을 주니까 말을 안 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가진 고위공직자 워크숍에서 “제가 이빨이 흔들려서 사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가

만히 있으니까 진짜 ‘가마니’ 인줄 알더라”고 농담을 건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리도 물살에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 우아한 자세로 있지만 물 밑에서 얼마나 생난리인가”라며 “가마니에 있는 참모들은 우리가 얼마나 노심초사했는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알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젯밤까지, 오늘 새벽까지 협정 타결을 위해 애쓴 국무총리님과 장

관님들, 일선 부서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다”고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정말 어려운 환경이었다. 나라의 국력을 키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만족할 정도는 아니지만 상당한 성과를 이룬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토·일 신문 쉽니다

온라인 뉴스는 gwangnam.co.kr에서 계속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전남을 혁신기지로 만든다

전남이 정부의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구축’ 사업의 출발점으로 낙점되면서, 재생에너지 기반의 분산형 전력 시스템이 전남에서 본격 실증된다.

태양광·해상풍력 등 지역의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을 에너지저장장치(ESS), 인공지능(AI) 기술과 결합해, 생산부터 저장·소비까지 지역 단 위에서 전력을 자급하는 ‘지산지소형(地産地消型)’ 전력 생태계가 국내 최초로 구현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차세대 전력망 구축 로드맵을 발표하고, 이 사업의 첫 실증지역으로 재생에너지 보급률 전국 1위인 전남을 선정했다.

구, 연구 장비 공동 활용, 기술 창업 협력을 통해 에너지신산업 창업 산실로 거듭난다.

지역 배전망 실증과 별도로 산업단지, 대학 캠퍼스, 공항, 군부대 등에 맞춤형 전력망 구축 실증 사업도 진행된다. 실증사업은 우선 지역 배전망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이후 산업단지, 공항, 군부대 등 다양한 거점으로 확장된다. 특히 전남 산업단지는 재생에너지 단지와 장주기 ESS, 그린수소 설비가 결합된 탈탄소 산업전환의 테스트베드로 가능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 분산에너지 기반의 최적화 전력시스템 구축 △

전력생산-저장-소비 전 과정 AI 기반 효율화 RE100 기반 주민주도 ‘에너지 자립’ 모델 구축

정부는 기존의 중앙집중식 송전 체계에서 벗어나, 배전망 중심의 양방향 전력 흐름 체계로의 전환을 통해 전력망의 유연성과 지역 수급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전남이 시범지로 낙점된 데에는 명확한 이유가 있다. 전국 태양광 발전량의 약 20%, 풍력의 약 40%를 책임지고 있는 전남은, 현재 신안 해역에 세계 최대 규모(8.2GW)의 해상풍력 단지를 추진 중이다. 여기에 한국에너지공단, 광주과학기술원, 전남대 등 에너지 특화 연구기관이 밀집해 있어 실증연구, 기술 창업, 인력 양성까지 가능한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

특히 한국에너지공대는 에너지 기업, 연구기관, 스타트업이 협업하는 오픈 캠퍼스로 운영된다. 한국에너지공단-광주과학기술원-전남대는 공동연

지역 전력 자급 및 수급 균형체계 조성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확산 및 이익 공유 모델 확립 △전력망 산업의 수출산업화 기반 마련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남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되며, 전기사업법과 전력시장 규제 특례가 적용된다.

정책 총괄을 위한 ‘차세대 전력망 추진단’도 구성된다. 산업부 이호현 2차관이 단장을 맡고, 기재부·국토부·농식품부·과기정통부·국방부 등 관계 부처는 물론, 전남도, 한전, 전력거래소, 에너지공단, 코트라, 민간 기업, 전문가 등이 참여해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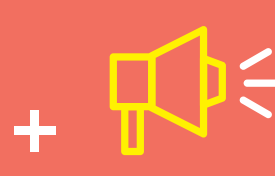
산업부 관계자는 “전남에서 출발하는 차세대 전력망 실증은 대한민국 전력 시스템 전환의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규 기자 gnnews1@



지속·반복적인 노출로 움직이는 영상매체



지역·타겟 맞춤광고 가능



높은 주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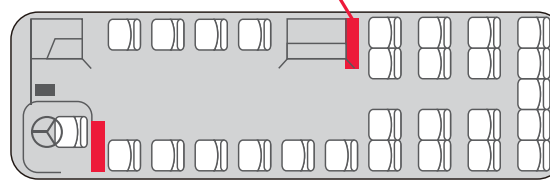


저렴한 광고비

이번정류장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 2층
(중흥동)

다음정류장
H | 주 | 광주버스방송

광고매체 위치
운전석 뒤, 하차문 뒤 (총 2개)



버스 내부 모니터 광고 문의 ☎ 062) 223-6511